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은 12월 17일 안양아트센터 대극장 안양홀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한마음음악회 '꽃이 핍니다'를 개최했다.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이 음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음악회 무대를 감상하며 합창단을 격려하는 내빈들.

# 선법가로 나눔 노래한 어울림마당

## 한마음선원, 12월 17일 한마음음악회 '꽃이 핍니다' 개최

### 1000여 대중 운집해 화제
### 전국 각지서 선법가 열풍
### 이웃종교계 참여, 화합 눈길

어느 계절보다 따뜻한 정이 필요한 겨울, 한마음선원이 이웃을 돕고 자기수행을 돌아보는 음악회를 마련해 지역사회에 훈기를 불어넣었다.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재단이사장 혜수)은 12월 17일 안양아트센터 대극장 관악홀에서 이웃과 나누는 한마음음악회 '꽃이 핍니다'를 개최했다.

음악회에는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등 한마음선원 스님들과 박종수 한마음선원 신도회장 등 재가불자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비구니 원로의원 수현 스님을 비롯해 안양의왕군포사암연합회장 성무 스님, 삼선포교원장 지광 스님, 삼선불학승가대학원장 묘순 스님, 용화사 주지 연규 스님, 이필운 안양시장, 이종걸 · 이석현 국회의원,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김대영 안양시의회의장, 최대호 前안양시장, 홍삼식 만안구청장 등 내빈이 참석했다.

특히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련된 합창제인 만큼 공연장 앞에는 나눔 보시함이 설치됐으며, 선원 대중들의 보시행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은 "이번 행사의 속뜻은 일체의 생명들이 속히 한마음 밝히기를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며 "스승이신 대행 선사께서는 선법가를 만들어 노래로 전하게 하시면서 '마음의 도리로 해서 진실하게 그 노래를 부를 때, 우주 법계에 두루 같이 그 음파가 돌아간다'고 하셨다. 이 뜻이 한마음음악회를 통해 이웃과 모든 이들에게 전해져 유생 무생한 인연도 빠짐없이 내면의 소식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선법가를 부르게 하신 그 뜻을 깊이 헤아려서 자기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의 생활 속에서 가르침을 실천하여 조금이나마 부처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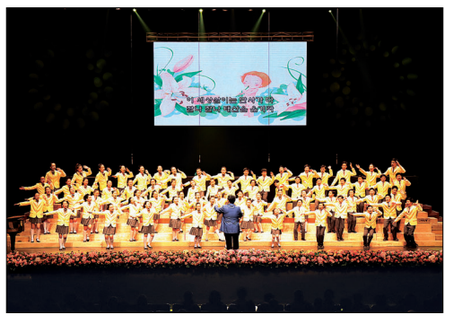
이날 음악회에는 가톨릭 수아비스 합창단과 안양 · 의왕 · 군포 불교사암연합회 합창단이 함께 참여해 종교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안양 · 의왕 · 군포 불교사암연합회장 성무 스님은 "노래는 혼자 부르는 것도 좋지만 여럿이, 함께 더불어 하는 합창은 더 큰 울림과 환희 감동을 준다"며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맞추는 합창은 배려, 공감, 소통, 협력이라는 마음가짐이 동반된다. 오늘 '이웃과 나누는 한마음음악회'는 합창의 의미처럼 나와 이웃이 서로를 배려하고 공감함으로써 세상을 아름다운 불국정토로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축하인사를 전했다.

수아비스 합창단 영적동반자 가톨릭 예수회 정구평 신부도 "우리가 자주 함께 할 수 없는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오늘의 따스한 여운과 벅찬 감동이 각자의 삶의 여정에 하나의 빛이 되어 주리라 믿는다. 이 자리에 함께 하는 모든 벗님들에게 언제나 기운과 위로가 동반되길 기도한다"고 종교를 넘은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다.




행사장 앞에는 소외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함이 설치됐다.



어린이선법합창단의 공연 모습.

박종수 한마음선원 신도회장은 "그동안 한마음선원 선법합창단은 자체적으로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올해는 연합합창단과 한 무대에서 음악회를 개최해 지역불교계와 교류, 이웃종교와 소통의 마음이 더욱 돈보이는 것 같다"며 "올해 처음으로 선법가 가사를 영어로 번역한 영어선법가가 해외지원 영상과 청년들의 합창으로 새롭게 무대에 올려졌다. 선법가를 통해 세계인과 더불어 함께 마음의 도리를 배우고 익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부 합창제서는 김세영 아나운서의 사회로 혼성 선법합창단의 '원통 속을 벗어나려면' '한 그릇의 물 맛', 어린이선법합창단의 '나는 반짝이는 우주' '작은 골목은 내 우주' '마음밭에는' '태산을 옮기자' '내 마음의 물방울', 한뿌리선법합창단의 '삼세심을 전달하니' '선법가는', 청년선법합창단의 '부처님 계신 곳' '한마음으로 돌아가네', 전국 거사연합선법합창단의 '한마음의 밝은 등불' '아름다운 강산', 청년선법합창단의 자이브 댄스 등 신명나는 무대가 펼쳐졌다.

또 2부에서는 안양의왕 불교연합합창단의 '그 마음 그대로' '인생팁', 보살선법합창단의 '꽃이 핍니다' '도라지 타령' '한강수타령', 가톨릭 수아비스합창단의 'Sanctus' '공놀이나 하여 보세', 선법합창단과 청년선법합창단의 '내가 무슨 걱정을 하랴' '돌장승 우는 소식' 등이 대중들의 환희심을 자아냈다.

이날 공연한 한마음선원청년회 박훈 씨는 "청년 법우들이 한마음으로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 전문가로 춤을 추거나 공연하는 이들이 아니지만, 이웃과 함께하는 음악회라는 이유 하나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준비했다"며 "대행 큰스님은 상대를 볼 때 나와 같이 볼 수 있는 마음, 상대의 마음을 내 마음과 같이 느끼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공연을 통해 주변 어려운 이웃을 함께 돌아보는 마음을 모으길 바란다"고 말했다.

멀리 대구지원에서 올라와 이번 전국 거사들의 연합공연에 참여한 조총민 씨는 "2011년도 합창제에서 대행 큰스님이 '잘해서 하늘로 뜨라'고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당시 처한 위치에서 열과 성을 다하면 자유인이 된다는 말씀이셨다. 연합공연이라 짧은 준비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했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참여도 눈부셨다. 어린이선법합창단의 김민성 학생은 "큰 무대지만 하나도 떨리지 않았다. 학교 끝나고 연습한 만큼 열심히 노래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공연은 어린아이부터 일흔이 넘은 어르신들까지 함께 즐기는 자리였다.

지난 합창제에서 공연한 한마음선원 청년회 권영덕 씨는 18개월 아이를 안고 공연을 보러 참석했다.

권 씨는 "객석에 있지만 대중들 앞에서 선법가를 부른 지난 합창제의 감동이 살아있다. 어려운 이웃을 향한 합창제의 뜻이 우리 아이에게도 전해져, 아이가 자라서 주변을 살피는 사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양=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신흥사 운암승려 노후수행관 입주 안내



사회복지법인 운암원에서는
승려 노후복지를 위한 비구니 전용 노후수행관을 개원합니다.
아래의 혜택으로 안내하여 드리오니 문의 바랍니다.

생활 의식주 (사부대중으로서 공동제공)

- 선원, 화엄학림 운영 (서예실, 화실, 도서실, 다실 등)
- 매월 (음, 7일) 원로큰스님 초청법회
- 전기, 상수도, 냉난방 세탁 (무료제공)
- TV 43인치, 드럼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쿡탑 (제공)
- 생활 필수품 (무료제공)
- 스님 출입시 부산역, 공항, 고속터미널 (승용, 승합 제공)
- 월 1회 온천 및 성지순례 (제공)
- 유선 전화기 기본요금 (무료제공)
- 월 40 ~ 50만원 및 타선원 방부시 대중공양 일백만원 지원
- 수행관 입주자 일반의료비, 중증의료비, 암 치료 등 (무료지원)
- 수행관 내 노후자 편의를 위한 승강기 3대
- 상시 승복(법복) 무료 제공
- 객실 / 실내 도반과 함께 입주 가능
- 승납(법납) 및 세속나이 관계없이 1차 입주는 가능함
- 수행관 주변 : 백병원(종합) 승용 3분거리 / 지하철 도보 10분 / 시내버스 종점 도보 3분거리 / 공원, 대학, 고등학교, 산책로
- 남덕유산 무위사 심신수련원 매년 거주(한철)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등록예정)
- 사후 사찰내 식장, 무위사 다비장 부도탑 49재, 사중제사 (단, 유언장에 따라 정리함)
- 입주자 : 전국 비구니스님 (60세 외 관계없이 가능)

· 개관 : 2017년 12월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주지 정일 성범 합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77-20
사찰전화 : 051-891-3776
문의전화 : 051-895-3400. 010-6783-1208